

FRONTIERS



***Special**

학Q홍 창간사

축사 : 쿠보타, S.F.A, 김유라

축전 : 특별 활동반 유저

News

일본 공모전 캐릭터 '프리데'

Suprise

GE매거진 K.Yun님 인터뷰
WCC의 영웅들을 만나다
유저, 기획자가 되다

VIRREY KESS KIELCE ORIGINAL IN VIRREINATO

CONTENTS

- 3 **Celebration** 창간 발 기념 인사
- 12 **Interview** 유저 KougaYun
- 15 **Champions** WCC의 영웅들
- 19 **Overseas Issue-Japan** '프리데'
- 22 **New Monster** 레지스탕스의 도적
- 23 **Homepage Issue** 오빠 GE 스타일
- 24 **Puzzle Talk** 유저에서 직원으로, 기획자 C
- 26 **Event** 당첨자 안내
- 28 **Horoscope** 10월 별자리 운세



FRONTIERS

GE의 소식을 개발사로부터 직접 전해볼 수 있는 소식지

프론티어스는 자체 온라인 매거진 윤리 강령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본 매거진의 모든 저작물은 imcGAMES에 소유권이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COVER STORY

브리스티아 업데이트 티저 영상에서 많은 유저의 심금을 울린 케이스 키엘체. 고운 외모와 달리 푸른 눈빛이 그의 차가운 성격을 대변한다.



◆ 창간 기념

학Q홍, 프론티어스를 창간하며..



온라인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그 속에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세상 속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많은 유저들이 접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GE 월간 소식지 '프론티어스'를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티어스를 발간하면서 몇 가지 염두에 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스마트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쉽게 전파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자.

둘째, 개발자 운영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더불어 유저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저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잡지를 만들자.

셋째, 알찬 내용으로 시간이 지나도 창간호부터 소장하고 싶은 잡지로 만들자.

가끔가다 책장을 뒤지다보면 나오는 옛날 잡지를 발견해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추억이 느껴진 경험, 여러분도 한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프론티어스도 그러한 추억을 여러분께 선사해드릴 수 있는 잡지가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witter

@cheydohundaddy

김학홍

작곡가
KUBOTA OSAMU



祝

GE WEBZINE 창간

축하드립니다~!

[Handwritten signature]
SEP. 2012 OSAMU KUBOTA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6년간 이어온 <그라나도이스라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웹진의 창간이라는 결실로 이어진것 같아 모든음악에 참여하고 함께한 저로서는 한없이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게임 유저들과 가깝없이 소통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구요. 계속해서 모든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Handwritten signature] S.F.A 2012. 9. 21

음악감독
S.F.A - 광동일

한빛소프트 김유라 부사장



♡ 그라나도 에스파다
「프론티어스」 창간을
축하드려요 ~ 😊
정기구독은 무심한가요 ~ ㅎㅎ

GE 유래부터
언제동안 함께하든
프론티어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유라
한빛소프트
부사장



그라나도 에스파다
「프론티어스」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새롭고 다양한 인문정보를 가득 담아
많은 우리분들에게 사랑받길 🙏

한빛소프트 PM
김현성

한빛소프트 김현성 PM

User Special Gift

특별 활동반 축전 자랑 코너



피요히코와재규어



SalonDeHorizon



리본기사단

Rabbit, Rabbit.

"가주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오슈의 매거진 디렉터로부터의 소포입니다."

"아, 드디어 온건가."

일전에 그 사진을 언젠가 올리겠다고 버르던 그녀의 모습이 생각났기에, 아마 이번 잡지에 실리겠거니 했는데. 소포를 뜯어보니 역시나, 문제의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토르쉐 박사의 웃지못할 부성애로부터 시작되었다. 인형 까뜨린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토르쉐 박사는 자신의 딸인 까뜨린느에게 남자들—특히 이온이 '집적거리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여 그에게 망신을 줄 방법을 곰곰이 궁리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었다. 그것이 바로, '토끼귀 머리띠 작전'...중략.. (특별활동반에 계속)

마녀페로



애플라인

User Special Gift



티스포네



SOROTE



장,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KYun 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필즈



명품치즈

User Special Gift



WO8LD



NORNEN



허리를접어드림



마일리



리스베스

아트 디렉터 K-Pic님을 만나다!



Q.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디렉터와 원화가로 활동하는 K-PIC이라고 합니다.

Q. 이번 브리스티아 작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GE는 많은 게임들이 소재로 삼는 중세의 컨셉이 아닌, 유럽 르네상스 이후의 여러 문화를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럽의 문화를 본래의 공간에서 떨어뜨려 신대륙에서 지속해서 소재를 찾아낸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6년간의 인물과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GE의 특성상 모든 갈등의 근간인 오르페시아 대륙, 특히 오랜 기간 대립중인 베스파놀라와 브리스티아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브리스티아는 재부흥을 꿈꾸는 패전국의 설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픽으로서 아름다운 유럽의 분위기를 유저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패전국’이라는 상반되고 아이러니한 컨셉이 유저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을지 개발자로서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인물들은 근대화가 진행되는 시대상에 컨셉을 두고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NPC들은 GE 역사상 가장 근대화된 복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군대’라 불렸던 ‘블러드 네이비’는 1차 대전 이전의 군복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연구소에서는 ‘3차 디자인 배틀’ 때 소개되었던 근대화된 여러 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컨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리스티아는 오르페시아 대륙의 첫 진출이자, 시대상으로는 조금 더 근대화된 설정을 도입해서 이후 GE 세계관 확장을 꾀한 전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Q. 발레리아, 폭에, 마리, 라셀 등 작업하신 캐릭터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AD를 담당한 것은 2년 정도지만 원화가로 활동한것은 6년 차로 접어드네요. GE는 게임, 만화계에서 이미지가 대중적인 코드에 편승한 캐릭터는 되도록 채택하지 않으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드' 같은 것이겠죠.

'마리'는 원래 NPC가 아니라 유저 편의 '펫 시스템' 보강 계획에 작업했습니다. 이것이 기획자분들과 한빛 관계자분들에게 발각(?)되어 금기를 깨고 NPC로 지목되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러 레벨의 메이드, 집사가 존재하며 마리는 가장 초기의 디자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후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인상에 남는 캐릭터입니다...는 것은 둘째치고 작업 당시 캐릭터와 내가 혼연일체 되어 마음 편히 작업해 본 것은 정말 입사 후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런저런 업무 덕에 원화 작업은 많이 하지 못하는데다가, 그나마 스케줄러가 주는 원화들도 남캐 뿐이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미리보기에 소개되어
영입 캐릭터로 인기가 좋은
마리 듀프레시



Q. 마지막으로 유저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GE를 제작하고 있는 개발자로서도 물론 그렇지만 원화가로서 '프론티어스'를 창간하게 되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 작업은 다른 그래픽 작업물에 비해 유저분들께 직접 공개되는 일이 많지 않아 커뮤니티의 장이 생기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작년 '디자인 배틀'를 통해 작업자와 유저의 소통이 제게 많은 의미를 준다는 것을 실감했었습니다.

이번 '프론티어스'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유저들과 교류를 해보려는 개발자의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기능뿐 아니라 즐길거리가 될 수 있는 GE로도 발전 시켜 보려하는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티어스'를 통해 6년여를 지나오면서도 늘 새로운 비주얼을 전달하려 애쓰는 GE 그래픽팀의 활동도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 파당새 짝퉁이 되어 소식을 물어 나르는

아코르의 SNS 소식

facebook



GE 페이스북이 생겼다. 벌써 '좋아요' 75!

놀러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만 눌러 주세요. 제발요.

주소 GranadoEspada 끝에 K가 붙은 이유 한국 GE라서??

이미 누가 선점하고 있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의 국적을 모르겠다. 쿨하게 포기하고 나의 턴을 넘긴다.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사진들

편집자가 직접 유저분들을 위해 주인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곤 한다.

twitter

GE_Ion_krbot 이온 릴리페
나는 그저...까뜨린느 너를...나는 너를...
약 2시간 전 twittbot.net

Adriana_krbot 아드리아나 바르티에
아 그래? 그럼 이리와서 사이 좋게 머리를 숙이고 있겠어? 기억을 확실히 날리기 위해서는 후두부의 급소를 제대로 가격해야 하거든, 어설프게 맞으면 되려 위험하니까, 자 어서?!
약 3시간 전 twittbot.net

캐릭터 봇,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 한가위에 송편을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우던 캐릭터 봇. 빨간날 끝나자마자 다들 원래의 멘탈을 찾아갔다. 특히 이온의 까뜨린느 찾는 지저귀는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그나저나 과연 캐릭터 봇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merace KallHyon
@GranadoEspada_K 네 ㅋㅋ 그거요 ㅋ 앞으로 레즐리님을 괴롭히기 위해 문의를 매우매우 많이 넣어야 겠군요 ㅋ
2012-10-02 11:20 Twitter for Android GranadoEspada_K 글의 답글

유저와 직원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리볼도외 서버의 비키니 사진 M 유저(man) 레즐리의 복귀 소식에 문의 사서함 폭탄 선물을 예고했다. 그런데 전 그저 편집자라.. 운영자 분들은 일이 많아지겠군요.

포토샵? 전혀 다룰줄 몰랐어요..

오직 그라나도 에스파다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GE 매거진을 만든거예요.

그 꿈이 현실이 되다!



스크린샷 게시판에서 '편집장'으로 불리우며 GE 매거진 표지를 올리는 K.Yun

이번 창간호 역시 그녀가 직접 참여한 표지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디자인이나 일러스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Q. GE 매거진 아이디어는 어떻게?

평소에도 스크린샷을 찍는게 일상화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편집해서 여러 게시물을 만들어요. 샷카툰은 스크린샷을 찍을때 나름대로 대사와 화면을 고민합니다. 그만큼 완성에 시간이 걸리지만 혼자서 무언가 만들었다는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단독샷은 딱히 '작품' 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찍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편집이라도 잘 해서 사람들로부터 '괜찮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잡지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러 잡지들을 보고 연구하고 만들고 지금의 GE 매거진 형태가 되었어요.

Q. 이 코너! 프론티어스에서 보고싶다!

*원화 특집 소개 코너

GE를 플레이함에 있어 쟁이나 컨트롤적 요소를 중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비주얼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몹시 큼니다. 솔직히 코스튬 모으고 예쁘고 잘난 영입 NPC 모으는 낙으로 그라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게임 내 구현된 비주얼적인 부분에 무척 신경을 쓰는 만큼 구현되기 이전의 원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미 공개된 것 이상으로 많은 원화들이 있습니다.

혹은 일본에서는 코스튬에 원화까지 공개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코스튬이 나오지 않았던가 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마수 로브 시리즈가 너무 예뻐서 코스튬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나오는걸 보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화 작업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의 숨은 이야기도 프론티어스에서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온과 까뜨린느 커플을 좋아하는 그녀. 이미 매거진 뿐만 아니라 예쁜 팬아트로도 유명하다.

Q.2006년부터 GE를 아껴주셨는데 그 열정이 대단하다.

아무래도 첫 온라인 게임이라서? GE의 그래픽과 세계관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또 다른 이유로는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컨텐츠 덕분이에요. 대표적으로 3MCC 여러가지 인스턴스 포즈, 갈아입힐 코스튬이 많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예정이라는 점. 예쁘고 잘생긴 수많은 캐릭터로 인형놀이하는게 좋아요.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아무리 내 캐릭터가 잘나고 멋져도 어울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걸로 뭘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가 3명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또 6명이 됩니다. 옷도 갈아입히고 포즈도 있고, 이 짝 되면 본격적인 놀이를 할 수 있어요.



GE와 관련된 것들로 자꾸 창작을 하다보니 더 애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겨요. 애정이 늘어난 만큼 또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멋진 코스튬 만들어 주세요.

포즈 가이드 북 12권도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Q. 까뜨린느&이온 커플의 추후 시나리오를 소원해본다면?

이온 영입 퀘스트만으로 아직까지 둘에게 목매고 있습니다. 까뜨린느 찾겠다고 펠리페 대공의 외아들이 본국 최고의 마법사 에르난데즈의 제자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버리고 신대륙까지 건너왔으니 몹시도 대단한 사랑이죠. 그러나 미래의 장인어른에겐 바퀴벌레 소리 듣고 쿨시크 까뜨린느에게 울보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현실이란.



물론 까뜨린느가 이온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특별히 잘해주지도 않고, 섭섭한 마음에 이온 편을 들어주는게 제 입장입니다.

그냥 까뜨린느가 자신도 이온을 좋아한다는 걸 우연히 깨닫게 되어서 둘이 알콩달콩한 커플이 되면 좋겠어요.

토르쉐 박사는 길길이 날뛰겠지만 까뜨린느의 “아버지, 집을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면 녀다운먹고 포기, 마리는 까뜨린느 일에 극성이어서 초보 커플에게 조언도 해주는 토르쉐 일가의 재미있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Q.결혼을 해도 GE를 플레이 할 것인가?

아직까지 결혼 예정은없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최소한 나의 취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생겨 육아에 신경써야 한다면 GE를 손에서 놓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야 굳이..이만큼이나 애정을 쏟아온 게임인데.. 그러니 계속 서비스해주세요♪

Q 프론티어스 구독자 분들께

부족한 실력이지만 특활반에서 K.Yun이라는 이름의 작가로 활동 중이에요.

GE 매거진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한장의 스크린샷에 불과했던게 실제 잡지로 창간된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답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이 실감이 안납니다만, 정말이래요! 매거진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다들 즐 그라 하시고 득템하세요 :D



편집자의 부탁에 본인의 사진을 보내주셨다. 다들 인형같은 K.Yun님의 모습에 반했다고. 오래오래 그녀의 GE 매거진을 특활반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길 기대해본다.



특집! WCC의 영웅들을 다시 만나다!

World Cross Championship 한국 대표 4인방

GM 특공대에 안 올려준다면 프론티어스!



* 작측부터

아이폰4S : 제 3회 WCC 우승자. 혜성처럼 나타난 실력자

잉스 : 소생의 제왕. 부모님의 가게를 도와 열심히 일하는 효자

EnterKey. : WCC 1, 2차 준우승 기록 보유. 그래서 별명이 콩, 콩냥화

알바천국 :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지난 2회에 이어 황당한 사연으로 4위에 머무름

한일전 한국 대표로 일본에서 큰 마음 먹고 준비한 GE 오픈 6주년 행사를 무색하게 만들 프론티어스 창간호를 장식하기 위해 imc GAMES에서 다시 만났다.

Q.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나?

일동 : 그렇지 않다. 게다가 아이폰 형은 갑자기 나타나서 우승하고는 바로 사라졌다. 넷이 다시 만난 것도 오늘이 처음이다.

Q. 많은 분들이 알바천국의 우승을 예상했다.

알바 : 나 또한 최선을 다 했다. 그런데 머리를 쓴다는게 잘못된 계산이었다. 나만의 창의적인 조합 덕분에 실패한 것 같다.

Q. PVP 잘하시는 분들은 컨트롤을 스타크래프트 방식으로 한다고 들었다.

일동 : 그렇지만은 않다. 개별 지정을 많이 활용하긴 한다.

특히 캐릭터 하나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마우스로 컨트롤 하는데 오히려 이게 가장 편하고 빠르다. 장비를 바꿀때도 마우스로 하는게 더 빠르다.

Q. 한일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일동 :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 좀 섭섭하다.

GM 특공대 올라올 줄 알았는데..

Q. 일본 선수들의 수준은 어땠나?

아이폰 : 우리 팀에 구멍이 있었다.

일동 : (엔터키 주목)



Champions



엔터키 : (갑자기 시선을 회피하며) 뭐하는 놈이길래..

편집자 : 개인전 첫 번째 경기는 고의로 진걸로 알고있는데?

엔터키 : 그렇지 않다. 아마 한일 PVP 서버가 같다면 그들은 무조건 10위 내에 있을 것이다. 난세 선수에게는 깔끔하게 패배했다. 덕분에 공홈에 반역자라고;;

편집자 : 전부터 욕 많이 먹어서 멘탈이 강할 줄 알았는데?

엔터키 : 가끔 게시판에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유저분들께 철퇴를 맞으면 나도 속상하다.

편집자 : 그나저나 일본 실력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다. 코스튬 강국이라서.

잉스 : 오히려 대만? 대만과는 절대 경기하고 싶지 않다. 실력이 엄청나다고..



Q. 다른 재미있는 이슈는?

알바 : 나와 경기를 진행했던 카오스선수 역시 일본에서 방송으로 유명하다. 그가 올라오니 관중의 함성이 들려 기가 죽었다. 어쨌든 내가 이겼는데 그가 내게 '리볼도외 솔져에게 지다니..' 라는 말을 했다.

아이폰 : 알바의 마지막 10초가 가관이었다.

잉스 : 갑자기 마우스를 집어 던지고 키보드로 피아노를 쳤다.

알바 : 다 필요 없고 한대라도 더 때려야 했다. 52점 차이 판정승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Q. 한일전 우승 후 방송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바 : 내가 조합을 바꾸거나 장비에 대해 이야기한 동영상은 조회수가 높다. 또한 한국보다 일본이 업데이트가 느려서 한국 유저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일본 유저분들이 방송을 보는 것 같다.

Q. 일본 6주년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가?

일동 : 레크레이션...?

편집자 : 레크레이션?

일동 : 우리나라는 행사를 진행하면 각자 따로 놀고 하고싶은걸 하는데 일본은 무려 2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아기새가 어미새 바라보듯 암전히 앉아서 지켜보길래 놀랐다. 발표하시는 분이 농담하면 다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이 멋있었다...

Champions

Q. 한일전에서 우승했다. 상금도 받고, 그런데 시상 시 정색하던 이유는?
역시 우승을 예상하고 있었나?

일동 : 진짜진짜진짜 테스트 서버에서 연습할 수 있게 환경 제공해주신 분께 감사 드린다.

우리가 원정팀이다보니 불안해서 매일 하루 30분씩 연습했다. 만약 연습에 소홀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했을 경기였다.

특히 공항 출국 하루 전에 PC방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 상대였던

<충일중학교, 회색고블린, 칼세아린, 하이나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수준 높은 분들과 연습을 할 수 있어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관계자 분께서 여기는 일본이니 너무 웃으면 분위기가 좋지 못할거라고 말씀해주셔서 꼭 참았다. 속으로는 하늘을 날 정도로 기뻐다. 웃음을 참느라 시상 시 표정이 다 기괴하다.

Q. 상금 어디 있나. 오늘 빈손으로 온건가?

아이폰, 잉스 : 등록금에 보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와서 똥줄 탔다.

엔터키 : 개인적인 빚 청산을 했다. 자취하느라..

알바 : 아버지 생신이셨다!!

Q. 의외다. 멋지다. 지난 번 참여팀은 술집으로 달려간걸로.. 심지어 오라며..

일동 : 아무래도 대학생이다보니 등록금이 제일 문제였다. 형들은 여유가 있어 그랬던 것 같다.

Q. 그나저나 아이폰4S, 우승자 훈장 너무 티내는거 아닌가?

잉스, 알바, 엔터키 : ?? 그게 무슨 말인가?

편집자 : 코임브라 서버 오슈 1채널 레오나르도 거리 앞에, 그것도 나르로, 그것도 악마템 들고, 그것도 WCC 3회 우승자 훈장 달고 하루 종일 서 있다.

아이폰 : 하하, 가끔 국가 대표, 가끔 우승자 훈장이다. 하지만 내가 평생 어느 게임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나? 훈장은 내 자존심이고 자랑한다는건 인정.





Q. 일본에서 마지막 날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동 : 한빛 관계자 분께서 일본 신사와 아키하바라를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도 있고, 한국인으로 태어나 일본 신사를 방문하고 싶진.. 그래서 아키하바라를 갔다.

Q. 아키하바라라면, 피규어나 오덕오덕한 상품들의 천국 아닌가?

일동 : 그렇다... 아주 개방적인 일본의 성문화에 감탄했다.. 좋았다...

Q.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아이폰4S에게 스티븐잡스란?

아이폰 : 안드로이드 쓴다.

가문명 만드는데 갤럭시, 갤럭시2, 아이폰, 아이폰1234 다 있었다..

Q. EnterKey.에게 콩이란?

엔터키 : 이제 콩도 아니다. 퇴물이다. 박수칠 때 떠났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있었다.

편집자 : 박수는 받았나?

엔터키 :

알바 : 떠날 사람은 빨리 떠나라! 다음에는 내가 꼭 우승하고 싶다!

나머지 일동 : 아마 내년이면 그분이 돌아오실 것 같은데..

알바 : ...!!!!!!!!!!!!



Q. 알바천국에게 아프리카 방송이란?

알바 : 친구에게 궁 미션 깨는 방법 알려준다고 시작했던게 벌써 2년이 지났다. 초보 분들께서 많이 도움 된다고 하시고, 방송을 보고 GE를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에 힘을 얻고 아직까지 하고 있다.

Q. 잉스에게 군대란?

잉스 :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굼)

편집자 : 울지마라 소년이어, 옆에 형들도 다 다녀왔다.

알바 : 저 면제 ^^*

*후기

GE, 공홈에서 보여지는 거친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다들 재미있는 청년들이었다. 특히 WCC 3회 당시 편집자는 아이폰4S님을 멀리서 보고 30대 직장인 유저라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고 한다.

근엄한 표정과 다르게 말을 재치있게 하셔서 배와 허리를 부여잡고 웃었다.

일본 유저 공모전 3회 당선 캐릭터

'프리데 베케라트'

....를 준비했으나, 이미 일본에 업데이트 되어 짧게 끝내겠다.



소년, 가족을 위해 여자로 살아가다.

미후유, 랄프에 이어 세 번째 일본 유저 공모전에 당선한 프리데 베케라트. 이미 그가 마법서가 아닌 룬트를 사용하는 스크린샷이 공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일본 유저가 응모할 당시의 기획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아, 나이가 15세에서 19세로 설정된 점 외에는.. 남자 쌍둥이는 나라에 불운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마치 영화 아이언 마스크 같은 지역 풍습에 따라 아들임에도 딸로서 자라났다. 하지만 성장하며 더 이상 마을에 살 수 없게 되어 신대륙으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FRIEDE BECKERATH



그녀, 아니 그의 얼굴을 보면 분명 남자의 생김새를 하고 있으나 옷차림과 목소리를 통해 여자로 위장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신대륙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신 '프리데'로서의 삶을 찾아나갈 것이다.

유저의 일러스트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해 원화가의 손에서 다시 한번 재탄생한다.

흔히 웹상에서 넷카마, 오키마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는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기에 되도록 '여장남자'라는 표현을 쓰자.



프리데의 랜더링과 대사 공개!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음악과 함께라면
피로딱윈
날아가 버리죠”

“어머, 설마 제가
여자인줄 아셨나요?”



프리데의 성우 ‘코바야시 유우’ 는 이미 많은 매니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편집자가 좋아하는 ‘쓰르라미 울 적에’, ‘지옥소녀’에 출연. 이렇게 귀여운 그녀인데, 어릴 적 남자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기에 프리데에게 동질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가 프리데의 대사 중 가장 인상 깊다고 뽑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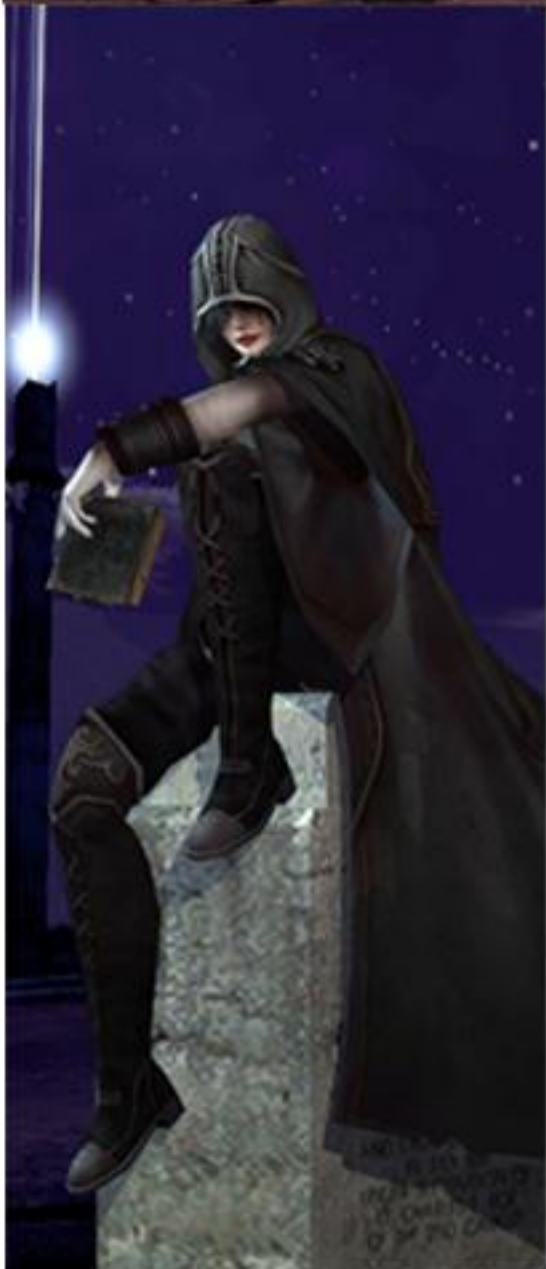
‘그래도 나도 남자에요!’

성격이 부드럽고 인정이 많고 온화하지만, 어딘가 몽실몽실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New Face

베일에 싸여진 남자의 등장
미묘하게 빈센트와 닮은 입술
과연 그의 정체는..?

여러분이 상상한 그의 시나리오를
GE 페이스북에 보내주세요



New Monster



복대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자칭 브리스티아 해방군!

이런 레지스탕스 도적과 함께 다니는 미친개 브라우니!

부장님께서 브라우니를 만들라 말씀하셨지만,

TV를 안보는 기획 팀장은 브라우니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제목 : **섹시베아**

글쓴이 : **비키니** | 날짜 : 12-06-05 21:43 조회 : 2081

뵤아 이번 비키니 너무 이뻐요..^^
 예어도 이쁘긴하지만 이쁘게도 뵤아한테는 잘 어울릴거같아서
 저도 의지의 포토샷을 ㅋㅋ
 그림을 잘그리지 못하므로 디태일하진않습니다.

스샷은 특판반에 아이겐크님 스샷입니다
 해변의 흑간주 뵤아연니 잘!

스크린샷 게시판

제목 : **모던 판데스타일**

글쓴이 : **판데성(Legend)** | 날짜 : 12-10-07 08:23 조회 : 1796

경이병 이남은 저를 나를 갈벼터 공황이 달았도 싶으리..

**누나 사랑해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베아트리에의 섹시 포텐 터지는 비키니
싸이의 강남 스타일 패러디
공식 홈페이지 스크린샷 게시판 엿보기!**



유저에서 imc 직원으로!



마성의 개, 개서린

성별 : 암컷

퍼즐 맞추기로 정신없는 대상을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으로 혼란시켜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야 마는 프로 리포터 모두가 그녀 앞에서 솔직하다

그녀의 첫 먹잇감은 기획자 C. 저돌적인 그녀의 매력에 빠져보자.

Q. 오픈 베타 유저였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대의 정체는 스파이?

하하. 맞아요. 당시 아름다운 그래픽, 3MCC, 킵 시스템의 매력에 반했죠. 게다가 김학규 대표님의 신작이었기에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어요. imc에는 유저로서 오프라인 행사에 자주 참여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공개방송, 봉사활동, WCC에서 좋은 분들을 사귀며 열혈 유저로 지냈죠.

유저였을 때 마성의 세테크럼을 돌고 있었는데 레즐리님이 나타나 감옥으로 소환했어요. 제가 트위터에 'GE의 숨겨진 명소 찾기' 요청을 했는데 무작정 감옥으로 데려가 가뉘버리더군요. 좋은 경험이었네요. 그걸 빌미로 GM 특공대 인터뷰도 뜯어내시는데 아오.. ㅋㅋ 그때는 정말 저러고도 경찰 출동 안하나 싶었습니다.

입사하고 보니 생각보다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유저로서 본 것과 달리.

Q.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법학 전공이었기에 게임 회사에 오게 될거라고는.. 하지만 imc에 용기 내 이력서를 넣었고 운 좋게 합격! 부모님이 처음에 내심 섭섭해하셨지만 지금은 즐겁게 회사를 다니는 제 모습에 많이 대견해하고 계세요.



Q. 제 3회 WCC MC였는데 알아본 분들이 계셨다고

네. 채팅창에도 그렇고, 끝나고 인사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훈훈한 외모의 C군은 법학도 출신이다**

imc GAMES에 입사하고 형, 동생으로 지내던 분들께 이유도 말하지 못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웠는데 알아보고 반가워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직원과 고객이 아닌 친구로서, 그 분들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죠. 하지만 책임감과 보안 의식에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개별적인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이 자리를 빌어 꼭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난 유저 시절 저와 친하게 지냈던 분들 감사합니다. 유저였던 시절 여러분과 GE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 했던 감정들 잊지 않고 직원으로서 imc GAMES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OCT 2012 Frontiers 24**

Q. 어떤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유저였을 당시 컨텐츠나 퀘스트를 이용하면서 쉽지 않은 난이도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팁과 노하우 게시판이나 개인 블로그에 공략을 올리고 노하우를 공유했었죠.

막상 입사하고 보니 게임에도 나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께 성취감을 드리게 위해서 공략이 너무 빨라지는걸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입사 전에 가보지도 않았던 실버카페를 매일같이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기획자가 되었다는 뿌듯함보다 유저분들 반응에 대한 조마조마한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쉽고 반응이 좋을게 예상되는 것만 만드는 기획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유저였던, 그래서 유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어, 유저분들께서 이 기획 의도를 이해해주길 바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만의 메리트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걸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개발자가 되는게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서린이와 유저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개서린양은 입사 전부터 귀엽고 도도해서 좋아했어요. (서린 : 웃음)
회사에 더 멋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은 제가 창간호 인터뷰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번 브리스티아 업데이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사 속에 중요한 팁도 있으니 엔터키 연타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



최선을 다 해 한 줄을 맞춘 C군.
다음 퍼즐을 이어나갈 타겟은 누구인가?

다음 이 시간에 계속..



본 코너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GE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세요.

Event

트위터에서 진행된 '프론티어스에서 보고 싶은 기사' 이벤트 당첨자를 공개합니다!

@ggoma5537 캐릭터 별 인터뷰.. 정말 원합니다. 리오넬 로르크 이온이라고는 말 안할게요.
@Granadoespada_k 남캐가 많아 보이는 아님, 남캐 밖에 안보이는건 기분 탓이겠죠?

@moisellePERO 브리스티아 개발 뒷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부모님(?) 이나 치열한 야근의 현장 뭐 이런거...

@Granadoespada_k 치열한 야근의 현장은 정말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마침 개발팀에서 12월 26일까지 집에 갈 계획이 없다고 하니깐요.

두 분께는 GE 캐시 3만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DM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Nornen 애플라인 W08LD 허리를접어드림 마일리 티시포네 리스베스 SOROTE
필즈 명품치즈 피요히코와재규어 SalonDeHorizon 리본기사단 마녀페로



남자 워록이 자신의 젖은
겨드랑이를 한껏 뽐내는
고급 트럼프 카드

당첨되신 분들께는 한빛온 개인 정보 주소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New Event

프론티어스 발간 기념 FaceBook 이벤트!!!



샤론 성우 서유리님께서
얼굴만큼이나 예쁜 글씨로 남겨주신 사인

그라나도 에스파다 공식 페이스북(GRANADOESPADAK)을 '좋아요' 누르고
프론티어스 창간호 안내 글을 공유하자.
추첨을 통해 서유리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

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레즐리 입니다.

프론티어스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게되어 영광입니다.


창간호 표지를 만들어주신 K.Yun 유저님과 마찬가지로 또한 불과 2주 전만해도 포토샵이나 타블렛은 잘 다루지 못했지만, 부족함 없이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점점 나아지겠죠..?)


프론티어스는 편집자만의 공간이 아닌 그라나도 에스파다를 이끌어가는 유저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이야기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차회에는 imc GAMES 디자이너 경연대회, 별목장의 재앙 이벤트로 현모를 진행한 당들의 인증샷,, 클레이 점토로 유명한 '러펠러' 가문 인터뷰 등 또 다른 흥미로운 기사들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올리겠습니다.

즐거운 개척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GranadoEspada_K

 granadoespadak

E-mail : ge_magazine@imc.co.kr

카카오톡 : 하트만 받을게요. 마음으로만



지인, 당원, 레이드를 찾는다면
ge_magazine@imc.co.kr로 보내주세요.
'나 생일' '결혼함' '애인 급구'도 대환영
아래 예시 참고

공통섭 당시 저보고
바퀴벌레라고 욕한 노인 찾아요



집 나간 당원 찾습니다.
총 다섯 명이고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리블도외 서버 매일 저녁 7시 지하실
미션 가실 분들 구합니다



초보 토끼 놀기 적당한 당 구함
'바니바니당근당근' 가문으로



HAMAN's Horoscope

이 달의 별자리
천칭자리
9월 23~10월 22일



현상유지만을 원하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브리스티아에 돌아갈 자격이 없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고된 개척의 길을 헤쳐나간다면 분명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길이다.

물병자리
1월 21일~2월 18일

당, 자신의 아이템, 캐릭터에 불만이 생긴다 하더라도 초조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 헤쳐나가라.

공식 홈페이지나 웹진을 통해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숨은 팀을 찾으면 큰 도움이 된다.

물고기자리
2월 19일~3월 20일

당신의 뜻과 다르게 무리하게 될 지 모른다. 하지만 개척의 가시밭길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

양자리
3월 21일~4월 19일

당신의 과감한 개척 능력은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하지만 잠시 독주를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라.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가문이 있다.

황소자리
4월 20일~5월 20일

10월 중순까지는 되도록 강화와 인챈트를 자제하라. 10월 황소자리는 다소 운이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달은 다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라.

쌍둥이자리
5월 21일~6월 21일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마이크와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당신의 넘치는 센스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즐거운 10월이다. GE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활용해보라. 이 달의 당신은 빛난다.

게자리
6월 22일~7월 22일

각종 스쿼드와 레이드에 참여해야 할 일이 많다. 월드 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달.

하지만 밤샘 레이드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라.

사자자리
7월 23일~8월 22일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라 개척은 계속 된다.

전투도 좋지만 이번 달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HAMAN's Horoscope

처녀자리

8월 23일~9월 22일

귓속말이나 채팅에 주의하여 타인에게 너무 까탈스러운 투로 말하지 말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당신으로 인해 타인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운 말을 적극 활용하라.

전갈자리

10월 23일~11월 22일

너무 당돌하게 굴지 말자. 구지 당원이나 지인에게 당신의 위엄을 알리려다 되려 고생할 수 있으니 이번 달은 긴장을 풀 여유가 없다.

궁수자리

11월 23일~12월 21일

운이 좋아 득템할 경우 기고만장 하지 말라. 의도치 않게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고집 피우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염소자리

12월 22일~1월 20일

일일 퀘스트는 미루지 말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의외로 달콤한 열매를 맛 볼 수 있다.

당신의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달이다

**진지하게 읽지 마
그냥 받아들이**



다음에는 제가
화투점을 봐드릴게요♡

전면광고

몬토로 성형외과

네가 맡긴 그 몸뚱이 내가 책임지고 아름다움을 돌려주마
가을 이벤트 '그랑마' 패키지 출시!



거무튀튀 균형감 없는 구조
돌출입으로 고민하던 과거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디자이너로 변신!**



Before

After

* 남성 성형 시 서비스로
얼굴의 작은 점 빼드립니다
* 여성 인종 수염 제모 가능



3D 광대
V라인 하악 축소술
눈매 교정술
돌출입 교정
이 모두가 엘리멘탈 주얼 1150개로!

24시간 온라인 상담 환영 공휴일, 연휴 수술 가능. 운영자 풀접속

